

# 일하며 배우던 내 젊은 날의 절정

## 나의 新丘文化社 시절

丁海廉

창작과비평사 편집고문

내가 新丘文化社 편집부에 입사하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敎學圖書라는 출판사 편집부에서 1년 반 가량 편집·교정 실무를 약간 익히고 나서였는데, 아마 1965년 늦가을이었을 터였다. 당시의 신구문화사는 출판계의 떠오르는 별이었고 편집종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조그만 출판사에서 이것저것 조금씩 익힌 것을 가지고 주어지는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출근을 했다. 그때 신구에서는 '현대한국문학전집' 제1회본 6권을 막 세상에 선보이고 있을 무렵이었다. 따라서 제2회본 편집·교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주어진 일이 소설작품 교정 보는 일이었다.

여태까지 내가 익힌 일은 대학교재, 교과서, 참고서류 등을 교정 보는 일이어서 기초적인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어휘가 갑자기 방대해진 것이었다. 기묘하고 까다로운 말, 방언, 구어, 속어 등의 낯선 말들이 부지기수로 등장하고 문장구조도 복잡하고 다양해진 것이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비로소 세상에 나온 듯한 경이와 두려움이 앞서게 되었다. 모르는 말이 나올 때마다 사전을 찾아보며 새로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 같이 소설교정을 보면서도 사전을 뒤적거려야 하는 회수가 잦으니 교정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고,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면 점심시간이나 되어야 겨우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유능하지는 못하지만 그 애쓰는 모습이 가상스럽다는 주위의 동정을 받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때 신구에서는 소설도 5,6교까지 보면서 오자 없는 책을 내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독자의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었다.

### 원전확인의 중요성 절감하는 계기 돼

이렇게 신구 편집부의 말석에서 편집·교정을 조금씩 터득해 갈 무렵 「가람文選」과 「時調文學事典」 교정일이 맡겨져 우리고전과의 끈끈한 인연이 비로소 맺어졌다. 그런데 「가람문선」은 책이 나온 뒤 오자가 많이 나온다는 평가를 받고 교정방법론에 대한 심각한 반성을 해보았는데, 그것은 필사원고의 경우 원본을 찾아 대조·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이후 고등학교 검정교과서인 「표준고전」(정병욱·이응백 공저) 등 국어과 교과서를 2회에 걸쳐 편집·교정하게 되었

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전후 10여년 이상 신구문화사 편집부에서 일했다. 이때의 신구문화사는 우리나라 출판계에서 그 비중이 매우 컸던 시기였고 진취적이며 발달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상을 배우고 일을 익힐 수 있었다는 것은 내게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신구문화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신구전문대학에 초청돼 영정을 나누었다. 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가 이종익사장, 뒷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필자.

는데, 이때 앞서의 실패를 교훈삼아 고전자료는 그 원전을 찾아 한자 한구를, 심지어는 방점 하나까지도 철저히 대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 이때 원전확인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내가 30대에 들어서는 1970년대를 맞이하면서 신구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책을 기획·편집했는데, 그 하나가 「한국현대사」(전9권)요, 또 다른 하나는 「한용운전집」이었다. 「한국현대사」는 현대사에 대한 관심과 역사의 대중화를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책이며, 「한용운전집」은 민족이 불행했던 시기에 그 지조를 지키며 민족독립을 위해 전생을 바친 분의 정신을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 민족정기를 고양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책이다. 나는 이 두 전집을 편집·교정하면서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에 눈뜨기 시작하여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다.

「한용운전집」을 편집·교정하는 일은 그때까지 해본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었다. 전집에 수록된 글은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에 저작, 발표된 글인데, 이 기간은 우리나라 文學史上 그 표기나 표현방법이 가장 두서없는 과도기였다. 한편 선생도 漢文으로, 개화기 문장으로, 번역체 문장으로, 國漢 혼용문으로, 또 현대문으로 이렇게 다양한 문체로 저술 발표했는데, 이런 글을 현대독자들이 무난히 읽을 수 있도록 그 표기를 현대화하는 문제나, 원작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독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혹자는 원전대로 해주면 그만 아니냐고 할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게 일하기도 쉽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종익사장은 일반 독자가 읽을 수 없는 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분 주장대로 천신만고 끝에 책을 내놓고야 비로소 우리는 그 주장에 전적으로 승복하는 한편 편집자로서의 그분의 뛰어난 안목과 선진적 의식의 편린이나 깨닫게 되었다. 한편 어렵사리 일을 하다보니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고 비용과 시간이 갑절이나 들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한용운 선생의 글을 손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

### 학계·문단의 저명인사 술하게 거처가

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즉 1965년부터 1976년까지 전후 10여년 이상을 신구편집부에서 근무했는데, 그때 신구문화사는 우리나라 출판계에서 그 비중이 매우 컸던 시기였고 진취적이며 발달했었다. 진취적이며 발달한 것은 경영자나 종사자들의 의욕의 산물일 터이고, 이런 분위기에 싸여 세상을 배우고 일을 익힐 수 있었다는 것은 나에게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 내가 섬기면서 배우고 또 함께 일하면서 우정을 통하고 행운과 복을 나누는 분들이 지금은 문단이나 학계, 교육계 등으로 나아가 원로나 중진이 되신 분들이 많은데, 문단에는 시인 辛東門 선생을 비롯하여 소설가 金文洙, 崔昌學 선생 등이 있고, 학계에는 연대 사학과 河炫綱 교수를 비롯하여 신구전

문대 元善子 교수, 고려대 노문과 朴炯圭 교수, 영남대 독문과 廉武雄 교수, 이화여대 불문과 金治洙 교수, 전남대 국문과 金春燮 교수, 서울대 불문과 李東烈 교수, 성대 국문과 金學成 교수, 영남대 인류학과 朴賢洙 교수 등이 있으며, 교육계에는 李憲植 선생을 비롯하여 楊教錫 선생 등이 있고, 출판계에 그대로 계신 분으로는 金星元 선생, 李瑤容 선생, 柳洪熙 선생, 李吉鎭 선생, 李泰元 선생, 朴贊洙 선생, 李善淑 여사, 申惠淑 여사, 박은경 여사 등이 언뜻 떠오르는 분들이다. 그리고 고인이 되신 閔丙山 선생은 편집고문으로 계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시다.

앞에서 나는 내가 신구문화사에 입사할 때 현대한국문학전집 제1회본이 세상에 선보이고 있을 때라고 하였고, 당시 신구문화사는 편집종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했다. 이 말은 신구문화사에서는 良書가 많이 출판되었다는 얘이기도 하다. 이때까지 신구에서는 「세계전후문학전집」(전10권)을 위시하여 「한국의 인간상」(전6권), 「세계의 인간상」(전12권), 「영미어문학총서」(전10권), 「노벨상문학전집」, 백철·이병기 선생의 「國文學全史」, 백철 선생의 「문학개론」, 이희승 선생의 「한글맞춤법통일안강의」 등이 간행되어 있었다. 이후로 나도 편집·교정에 부분적이거나 전적으로 참여하여 간행된 책의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전집 및 사전류로는 「현대한국문학전집」(전18권), 「현대세계문학전집」(전18권), 「영원한 인간상」(전5권), 「대통령이전

# 열정과 성실로 꽃피운 한평생

李鐘翊 선생을 추모합니다

崔德教

출판인 · 창조사 주인



고이종익씨

우리들이 가고 있는 길, 그 종점이란 언제 나 슬프다고 하던가요. 매서운 바람결에 날아 온 당신의 부음을 듣고, 우리는 멍하니 귀를 기울일 수도 없었고 눈을 뜰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훌쩍 떠나십니까. 사람이 세상에 올 때는 한 소리 크게 울면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조용한 웃음으로 하직한다던데, 당신에게는 그럴만한 겨를도 없었겠습니까. 이승에서 하던 일들이 너무도 바쁘기만 했던 당신이요 보면, 죽음 또한 그렇게 충충히 맞이했나봅니다.

하늘은 우리 곁에서 한 장부를 데려갔습니다. 휘칠한 키에 걸걸한 목소리, 청산에 오르면 청산의 주인이 되고, 서울 한복판을 거닐러치면 장안에 운기를 뿌리던 그러한 현현장부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친구였습니다.

당신을 처음 뵈게 된 것은 참 오래전 일입니다. 그 쓰라렸던 전쟁과 피난이 북새판을 치던 1953년 초여름, 대구에서 뜻하지 않게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때까지는 피차 통성명조차 없었는데, 당신은 「학원」 편집실을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춘원이 쓴 「이순신」 한 권을 가져오셨습니다. 처음 대하는 청년과 청년은 그 책장을 넘기면서 조국의 앞날을 근심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뜻은 높고매하여 문화를 생각하고 교육을 펼쳤습니다. 30대에는 친구문화사를 차려 대업을 이룩하였고, 50대에는 친구대학을 열어 만천하에 인재를 길러내었습니다.

당신이 내놓은 그 준비하게 서 있는 책들은 페이지마다 당신의 눈길이 지나갔고, 당신이 세운 그 우람한 학교건물에는 벽돌 한장 철근 한가닥에도 당신의 손이 뜨겁게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니, 당신의 삶은 참으로 열정 그대로였고 성실 그대로였습니다.

당신은 한평생을 한눈 팔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40이 넘었을 때도 술맛을 모르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 시인이 당신의 뜰에다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어 주었다지요. 해마다 포도는 탐스럽게 영글었고, 마침내는 포도밭을 이루었습니다.

가을이면 그 포도를 거두어 술을 빚어놓고는, 그것이 프랑스의 어느 집 가양주보다도

빛이 더 곱고 맛이 더 높다고 하면서 자랑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친구를 불러서 잔을 권했습니다. 당신은 그 무렵부터 술맛을 알았노라고 하면서, 평생을 포도주만을 즐기며 사랑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대왕산 그들이 길게 늘어지던 청량한 저녁, 당신이 일구어 가꾼 그 넓은 정원에서 놀던 한때는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한폭의 신선도였습니다. 隱石 · 玄岩 · 龜亭 · 三山 · 汀石 · 灘巖 등 출판계의 노장들이 당신과 더불어 즐겼던 일, 그리고 올해도 꼭 그 자리에서 만나자고 하던 당신의 말씀, 그런데 이제 당신은 어디론가에 숨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예순의 세월을 넘고 일흔을 바라보면서도 그 넓은 가슴엔 늘 뜨거운 무엇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내년에는 무엇을 하겠다면서 화려한 설계도를 곧잘 펼치곤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아쉽고 더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여운을 남긴 친구, 고독한 시대 괴로운 연대를 함께 살았던 친구, 많은 일을 남겨 두고도 한점 미련없이 떠나버린 친구…….

친구여! 편히 잠드소서.

집」(전9권), 「한국현대사」(전9권), 「한용운전집」(전6권), 「이무영전집」(전5권), 「한국인명대사전」, 「시조문학사전」, 「국어국문학사전」, 「정치경제학사전」 등이 있고, 단행본으로는 「한국사의 반성」, 李弘植박사의 「한국고대사 연구」, 鄭炳显박사의 「한국고전시가론」, 李應百박사의 「국어교육사 연구」 등이 있으며, 「신구문고」가 56권까지 간행되었다.

이와 같은 책 가운데 낙양의 지가를 올린 베스트셀러로는 「세계전후문학전집」, 「한국의 인간상」, 「현대한국문학전집」, 「한국인명대사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세계전후문학전집」과 「현대한국문학전집」은 문학에 뜻을 둔 이는 누구나 거쳐야 하리만큼 한국문학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 교정작업 진행하며 새 자료 발굴도

신구편집부에서 10여년 이상 일하면서 경험했던 일 가운데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편집 · 교정에 얽힌 이야기들을 몇 토막 추려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 먼저 올챙이 시절의 이야기인데, 「현대세계문학전집」 제6권 井上靖의 「風濤」를 교정 볼 때의 일이다. 이 작품은 李元燮선생이 번역한 것으로 麗元연합군이 일본을 정복하려다가 실패한다는 高麗史와 元史에서 취제한 역사소설이다. 이 작품의 원고교정을 보면서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역사사실과 대조를 해보게 되었다. 대조를 하다 보니 인명이나 지명, 날짜 등 원자료와 다르게 표기된 것들이, 즉 원작의 誤記가 여러 군데 나오기에 일일이 譯註를 달아 주었다. 그랬더니 편집부에 같이 있던 박재용선생이 원작자에게 문의 겸 알려 주자고 하면서 日文으로 편지를 써서 나더러 부치라고 하기에 부쳤더니, 그후 1년여가 지난 다음 회신이 왔는데, 그 작품을 마침 개작할 계기가 되어 개작하면서 지적해준 것을 바로잡았다고 하면서 개작본을 함께 보낸다는 것이었다. 역사 이원섭선생으로부터도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한용운전집」을 교정 볼 때의 일이다. 전집 제5권에는 「黑風」이라는 장편소설이 실려 있는데, 이는 원래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작품이다. 그런데 교료를 놓기 전까지 중간중간 8회분이나 빠져 있었다. 그만둘까 하다가 그래도 하는 마음으로 찾아나섰다. 종로도서관의 조선일보철을 점검해 보니 2회분이 찾아졌다. 나머지 6회분은 중앙대 도서관

의 조선일보철에서 찾아냈다. 이때 같이 찾아나섰던 분이 「북대륙의 하룻밤」이라는 수필을 새로 찾아내기도 했다.

끝으로 신구문고 제2권 「풍속가사집」의 漢陽歌 이야기다. 이 한양가는 원래 正音社에서 나온 宋申用 교주본을 바탕으로 李石來 교수가 새로 교주한 것인데, 미상 부분이나 이상한 곳을 확인하려고 서울대 고도서의 필사본을 복사하여 대조해 보는 과정에서 文科과거장면 앞부분에 있는 武科 장면 80여구를 발견하여 보충하는 한편, 민중서관 고전문학대계에 나오는 朴晨義 교주본 한양가에서 새로 발견했다고 해체에 대서특필한 부분까지도 찾아넣었다. (이 문고가 민중서관 것보다 먼저 나왔다.)

## 함께 일하며 배운 내 인생의 청년기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청년시절을 내뒀는데는 열심히 일하면서 보내고 있을 때, 신구문화사 이종익사장께서는 육영에 뜻을 두고 신구전문대학을 설립하시어 불철주야 온 정력을 거기에 쏟아넣으라고 출판활동을 등한히 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나도 결국 일터를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옮긴 곳이 창작과비평사였다. 내가 창비에서 「牧民心書」나 「蔡萬植全集」 기타 고전 관계 저술들을 무난히 편집 · 교정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신구문화사에서 닦은 경험 때문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작년 1년, 이종익학장께서는 그동안 학교를 설립하고 가꾸는 데 여념이 없어 미처 하지 못했던 출판활동을 이제 다시 시작하여 우리 출판문화의 금자탑을 세우시겠다고, 즉 한국인명대사전증보판을 내고 또 꾸준히 또 방대하게 자료를 수집해온 古地圖叢書도 내고, 輿地圖書도 면목 일신 실용성 있게 만들어 보시겠다고, 그밖에도 당신이 아니면 누구도 못할 鄉土文化大系 같은 책들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면서, 떠나 있었기에 무더진 출판에 대한 현실감을 회복하시느라고 애쓰셨다. 그러나 하늘은 누구나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을 다 할 수 있게 하지는 않는가 보다. 또 우리 출판계가 나아가서는 문화계가 불운하여 앞으로 큰 업적을 세울 이런 분을 갑자기 잃게 되었는데가 보다. 일로만 평생을 사신 분이기에는 이제 그처럼 쉬시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